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22
----------	------

발의연월일 : 2024. 10. 25.

발 의 자 : 강명구 · 최수진 · 조정태
서명옥 · 권성동 · 구자근
이헌승 · 박덕흠 · 임종득
배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월 상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해 결산배당의 경우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액이 결정되어 배당받을 금액을 모르고 투자하여야 하는 이른바 갭감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당절차 개선이 이루어졌음. 이후 전체 상장기업의 40% 이상이 정관에 배당절차 개선을 반영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황임. 특히, 2023년 정관을 개정하고 2024년 현금배당을 결정한 322개 상장기업 중 약 34%인 109개사가 갭감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결산배당과 달리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여전히 배당절차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분기배당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결산배당과 마찬가지로 분기배당에 있어서도 갭감이 배당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12제1항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를 “이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말일부터”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일”을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관”을 “정관 또는 이사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 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u>그 사업연도</u> <u>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u> <u>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u> <u>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u> <u>“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u> <u>있다.</u>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u>제1</u> <u>항의 말일부터 45일 이내</u> 에 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u>20일</u>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u>정관</u> 에 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 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 ⑨ (생 략)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 ----- ----- <u>이사회</u> ----- ----- ----- ----- ----- ----- ----. ② ----- <u>사업</u> <u>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u> <u>월의 말일부터</u> ----. ③ ----- ----- <u>1개월</u> ----- ----- . ----- <u>정관 또</u> <u>는 이사회</u> ----- -----. ④ ~ ⑨ (현행과 같음)